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축하예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

12월 25일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여 참된 평화, 기쁨, 희락을 누리고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성탄절이다. 성탄절의 의미는 빛으로 오신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억하고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며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대강절을 마치고 25일 주일은 성탄절을 맞아 성탄축하예배를 드린다. 1부에서 5부까지 각 성가대별로 성탄특별찬양을 한다.

성탄절을 맞아 광림교회 각 부서에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교제와 위로와 희망의 손길을 베풀었다.

청년부 성탄트리 캠페인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에서는 매년 성탄의 계절인 12월이 되면,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생필품을 전달

해 왔다. 특별히 이번 겨울에는 12월 4일~25일까지 <성탄트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남복지재단, 태화복지재단과 협력하여 취약계층 '1,000세대'에 생필품(쌀, 김치, 이불, 연탄)을 전달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주송 목사는 "캠페인을 통하여 생일을 맞이하신 아기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청년들이 생필품을 나눌 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본당 트리를 제작한 청장년부 성은정 성도는 "우리에게 선물처럼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빛과 말씀, 사랑을 콘셉트로 하여 빛된 말씀들을 듣고 친구네 집에 가는 것을 모티브로 하여 집의 외관을 본당 로비 디자인으로 했습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전개하여 공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해 표현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박영노 장로)에서는 12월 24일 토요일 새벽 5시30분부터 외롭고 소외된 노인 200여명에게 떡과 한방과스, 사탕, 두유, 양말, 현금 2,000원씩을 나눠주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남선교회에서는 결혼식에서 축하화환 대신 모금한 '사랑의 쌀'을 통해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각 교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2022년 송구영신예배로 한해 마무리

12월 31일(토) 오후 11시30분에는 광림교회 대예배실과 각 부속실에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린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되며 특별히 CTS방송을 통해 광림교회 송구영신예배가 생중계된다. 송구영신예배는 지난 일 년을 되돌아보며 각자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새로운 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된다. 또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기 위해 죄 사함을 구하는 회개기도를 드린 후, 성찬식이 거행된다. 2022년 광림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시대적인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나왔다.

2023년 광림교회 표어는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고후 8:7~9)이다.

백명순 기자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누가복음 12장 15절)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에서 사람의 행복조건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면 하늘의 상급이 허락된다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으며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추수 때에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많은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 이전의 곳간을 허물고 새로운 곳간을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곳간에 쌓아둔 곡식을 보면서 앞으로 좋은 날을 보낼 것을 상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눅 12:20~21)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생명을 살아가며, 어떻게 참된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19절)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혼(정신)과 육(육체)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움과 경험을 통해 정신세계를 폭넓게 할 수 있고, 운동을 통해 육체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그 영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혼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가 비로소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게 회복될 때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영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정신의 세계를 다루지만 기독교는 영혼의 세계를 다룹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영혼과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며, 지식이 새로운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바른



누가복음 12장 13~21절
13.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6.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 심 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됩니다.

둘째,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부자의 비유 본문 가운데 ‘나라는 1인칭 주어가 무려 6번 나옵니다. “내 물건”, “내 곳간”, “내 영혼” 등 수차례 등장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많은 부와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둔 부자는 영혼에게 이르

기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19절)라고 말하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소출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과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마 22:39)”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이웃의 아픔을 같이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15절)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어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기 바랍니다.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기부를 많이 하는 인물 중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의 이름이 어김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100불을 가지고 투자회사를 만들어 지금의 기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를 눈여겨 볼 것은 그의 투자방식보다도 그의 인간 됨됨이입니다. 그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항상 10불짜리 음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은 차를 스스로 운전하고 다닙니다. 이처럼 시골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워렌 버핏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받는 이유는 ‘그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때문입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공식 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 이처럼 워렌 버핏은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며 재벌층의 기부문화를 격려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과 지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할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서주일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 수여식



광림교회는 12월 11일 성서주일을 맞아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신앙의 유산인 성경을 물려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3부 예배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들과 부모, 교사 100여 명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 정해나 학생(초등 2부)이 성경(눅 2:22-33)을 봉독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딤후 3:16-17 말씀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성경 수여식을 통해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신앙의 유산인 성경을 자녀에게 물려주며 기념하기를 바란다"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자녀와 부모 대표 감다엘 학생(초등 1부)과 감충원 권사·염신아 집사(14교구)를 비롯한 모든 자녀와 학부모들은 일어서서 결단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녀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어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부모들은 삶의 지침인 성경대로 살아감으로 자녀에게 본이 되며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성경 수여식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대표 학생에게 성경책을 수여하고 부모들도 자녀에게 성경을 전달했다. 광림교회는 학생들에게 설교노트를 선물로 준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쓰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응원했다. 부모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생명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 자녀들이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길 기도했다.

소현수 기자

실업인선교회

교역자를 위한 감사의 밤



광림교회 실업인선교회(위원장 권후원 장로) 주관으로 12월 16일(금) 오후 5시, 사회봉사관 4층에서 본당,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광림서교회를 섬기는 부목사, 전도사 그리고 서울 대학병원 등 10곳의 외부기관 과송 목사들의 헌신을 위로하는 '전교역자를 위한 감사의 밤'이 열렸다.

김정석 담임목사를 비롯한 부목사, 전도사 100여 명과 원로, 시무 장로, 남녀선교회 임원들, 그리고 실업인선교회 회원까지 모두 18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감사의 시간, 3부 화합의 시간이라는 순서로 진행

되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구유 속의 십자가'(눅 2:1-7)라는 제목으로 메시아의 '나심'과 '오심' 그리고 '되심'의 예수 오심을 전했다.

권후원 장로는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전교역자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며 "특히 올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만에 재개되어 더욱 뜻 깊은 자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의 행사를 위해 아낌없이 물질과 정성을 바친 선교회 및 광림교인들, 그리고 전교역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말로 마무리했다.

또 실업인선교회 임원과 회원들이 모은 동탄교회 건축 헌금을 담임목사에게 전달했다. 실업인 선교회의 목표액이었던 1억 원의 건축 헌금을 전달받은 담임목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광림교회의 비전에 어렵고도 귀한 보탬을 주셨다"고 말했다.

3부 화합의 시간에는 실업인선교회만의 자랑이자 마스코트인 오키즈팀의 오키라나 특별연주와 함께 레크리에이션 전문가의 능수능란한 진행으로 유쾌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경품추첨 시간에는 드림세탁기, 한우세트, 에어컨, 토마리온, 음식물처리기 등 푸짐한 선물이 거의 전원에게 돌아갔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모두가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순서가 채워졌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물심양면으로 교회사역에 헌신을 다하신 모든 광림교회 교역자들이 새해, 새 힘을 얻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기도한다.

이성곤 권사(실업인선교회 부총무)

새가족위원회

새가족을 위한 송년 행사



새가족을 위한 송년 행사가 새가족위원회(위원장 한상국 장로) 주관으로 12월 11일(주일) 12시 30분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3년 만에 재개된 새가족 송년 행사에는 1교구부터 청년들이 속한 88교구까지 올해 광림교회에 등록된 150여 명의 새가족들이 함께 하였다.

국악 예술 강사로 활동 중인 김미니 집사(5선

교구)가 두려워 말라와 십자가의 전달자의 찬양으로 새가족들을 환영했다. 새가족들은 소속 선교구 목사와 인사 후 대화를 나눴으며, 선교구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았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어떤 연유로 주의 전에 오셨을지라도, 아직 예수님과 깊은 만남의 경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걸음이 지속적인 걸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

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환영합니다"라며 새가족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후 담임목사와 각 선교구 목사가 새가족을 위한 경품 추첨을 진행하였다. 실업인선교회와 남녀선교회 등의 후원으로 준비된 에어프라이어, 가습기, 안마기, 스타다라미, 밉크 목도리, Jesus Christ Superstar 뮤지컬(BBCH홀) 관람권, 수연씨 안녕(장천홀) 관람권 등 다양한 경품이 새가족에게 전해졌다.

한상국 장로는 "새가족들과 3년 만에 송년 행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들이 광림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내년부터 새로워지는 새가족 교육에도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희윤 기자

포토 뉴스



장로회 송년예배

12월 17일 사회봉사관에서 시무장로 송년예배를 드렸다.



원로장로 정기총회

12월 18일 사회봉사관에서 원로장로 정기총회가 열렸다.



365+가정예배서 출간
2023년 365 가정예배서가 출간되었다. 빛의 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담임목사 동정



- 12/13 여선교회 송년예배
- 12/15~16 신천임원 면접
- 12/16 교역자 감사의밤 (실업인선교회 주최)
- 12/17 장로회 송년회
- 12/18 유아세례
- 갈릴리성가대 송년회
- 청장년부 1st Wedding Anniversary Party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창립 70주년에 임명되는 신천임원들



2023년 창립 70주년을 맞는 광림교회가 신천 임원(권사, 집사)을 선출하는 시험과 면접을 진행했다. 신천임원 시험은 지난 12월 13일 오후 6시 30분 나사렛성전에서, 신천임원 면접은 15일 오후 7시 30분, 16일 오전 10시, 2회로 나눠 벨엘성전에서 열렸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면접에는 김정석 담임목사와 한정희 사모가 참석해 임명된 신천임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신천임원에게 “창립 70주년에 새로운 임원으로 임명되는 특별함을 누리라”고 말하며, “부요케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고후 8:7-9)라는 2023

년 광림교회의 표어를 선포했다. 이어서 “임원으로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품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라”고 당부하며 “교회에 헌신하고, 임원에 합당한 삶을 살며,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또한 온전한 십일조와 절기 헌금을 잘 드리고, 신앙생활에서 감사와 헌신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천집사로 임명되는 10교구 이효진 집사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집사 직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면접 때 담임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본이 되고, 거룩한 예배 습관을 길러 임원에 합당한 삶을 살며, 교

회에 더욱 헌신해 광림교회 70주년 역사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올해 시험과 면접을 치른 신천임원은 집사 98명과 권사 91명으로 12월 28일 수요일 예배 시간에 열리는 당회/구역회에서 정식으로 직분을 받게 된다.

임명된 신천임원은 믿음과 충성으로 교회를 섬길 것을 약속하며, 교회학교·성가대·사이닝스쿨·사랑부 등 교회 각 기관에서 봉사하게 된다.

한혜선 기자

여선교회총연합회

한 해 동안 헌신한 여선교회, 송년예배 드려



광림교회 여선교회총연합회(회장 이화열 권사)는 2022년을 마무리하며 12월 13일 (화) 오전 10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송년 예배를 드렸다. 마리아, 에스더, 루디아 총 46개체 선교회장 및 회원과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 한 해를 마무리

하며 드려진 예배는 3부의 순서로 나뉘어 1부는 예배와 성찬식, 2부는 찬양집회, 3부는 경품추첨을 진행하였다. 코로나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여선교회는 동탄성전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해 힘썼으며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눅 1:26-38)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믿음의 여인이었으며, 말보다 순종의 삶을 살았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다”고 했다. 여선교회가 한 해 동안 믿음과 겸손 안에서 한 일은 여선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일이었음을 강조하며 많은 자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선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앙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함을 깨닫게 하였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는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대상 29:14)라는 다윗의 마지막 감사기도를 기억하며 여선교회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했다.

시상식에서는 12번의 여선교회 월례회에 모두 참석한 107명의 회원에게 개근상, 11번 참석한 59명의 회원에게 정근상, 우수 선교회에 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여했다. 2부에는 <은혜>와 <행복>의 작곡가인 손경민 목사를 초청하여 총 6곡의 찬양과 간증을 들으며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 3부에는 참석자를 대상으로한 경품추첨을 하였고, 총 33명의 여선교회 회원이 행운의 선물을 받았다.

예배 시작 전 받은 일회용 성찬키트로 성찬식을 거행한 후 여선교회 총연합회 회장인 이화열 권사는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목회자들과 사명을 위해 쓰임 받은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팬데믹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삶의 많은 결가지를 준비하게 하셨고,

박희윤 기자

남선교회총연합회

화환 대신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열려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는 12월 11일 주일 2부예배 후 본당 로비에서 <화환 대신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사랑의 쌀은 결혼식을 갖는 가정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있을 때 가능하며, 토요일 예식을 올리기 전 남선교회 임원들이 나와 사랑의 쌀 리본을 달아 주고, 이를 모아서 각 교구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택배로 나눠주고 있다. 또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갖지 않고 외부예식으로 할 때도 봉사자들이 나가서 사랑의 쌀 리본을 달아준다.

이날 행사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광림교회에서 외부에 대한 후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 남선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에 대하여 나눠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에 감

사를 드린다”고 남선교회 임원들을 격려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쌀은 코로나로 주춤하였지만 올해도 642가정에 1천 7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금까지 총 4억 2천만 원의 후원금을 조성하여 11,250 가정을 지원하고, 개인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불우시설을 찾아가 나눔을 실천해 왔다.

사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나눔의 동산(원장 김재수)은 춘천 사북면에 있는 사회복지업체로 장애인 30여명과 교사들이 시설에서 숙식을 함께 한다. 김 원장은 “그동안 무의탁노인, 학생, 장애인 등 50여명이 함께 생활했으나 지금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이다. 그동안 후원금을 보내주는 곳은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직접 찾아와 준 것은 이번 광림교회가 처음이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오전 행사 후 오후에는 남선교회 임원들과 스테반선교회 회원들이 ‘춘천 나눔의 동산’을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했다. 코로나 이후 시설방문은 사실상 어려운 편이 있었는데, 방역 완화 후 처음 스테반선교회 회원들이 후원과 동참을 했다.

박기연 장로는 “교회에서 하는 결혼예식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사랑의 쌀 행사에 많은 교인들이 동참해 주었다. 외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할 때도 사업본부 임원들이 찾아가서 수고를 해 준다. 직접 외부시설을 찾아가는 나눔행사를 이번에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린다. 공활한 마음을 가지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남선교회가 되겠다”고 했다.

스테반 센터장인 심승욱 권사는 “스테반선교회의 회비가 들어오면 그중 일정부분을 나눔과 돌봄의 행사에 쓰여진다. 스테반센터 내에서도 국내본부가 있어 그동안 시설방문 등을 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 동참하게 되었다. 앞으로 회원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찾아가서 봉

이득섭 기자

“따뜻한 겨울을 선물합니다”

청년선교국 <사랑트리 캠페인> 강남지역 1,000세대 각종 생필품 지원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밝게 비추기 위하여 사랑트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2008년부터 매년 이어져 올해로 15회차가 되는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사랑트리 캠페인으로 변경하였다.

청년들은 12월 한 달 동안 광림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모금행사를 진행하며, 강남복지재단(700세대), 태화복지재단(300세대)과 연계하여 강남지역 취약계층 1,000세대에게 5,000만원 상당의 각종 생필품을 전달한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예수 오심의 기쁨을 강남구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남복지재단 심재원 이사장은 “강남구는 25개 구에서 12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구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

게 해주신 광림교회 성도님들과 김정석 목사님, 청년선교국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광림교회 청년들은 서울 강남 구룡마을로 향했다. 그중에서도 길이 험하여 연탄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연탄을 나르기 위하여 기다란 인간띠를 이루어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하나씩, 하나씩 옮겼다. 추운 날씨에 얼굴에 땀이 날 정도로 연탄을 나르는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생각에 힘들기보다 보람을 느끼며 이

웃사랑을 실천하였다. 광림교회 청년부 김지현 자매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기다려 왔었던 연탄 봉사인데 지금 다시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사랑 실천의 기쁨을 나누었으며, 박현서 형제는 “평소에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를 통해서 좋은 기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였다.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연탄을 지켜보는 어르신들은 고마움과 안도감을 느끼며 광림교회 청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구룡마을 주민 성월자님은 “추워서 이불만 덮어쓰고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연탄을 주시니까 올해는 따뜻한 해를 지낼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영옥 전도사(청년부)

신앙 간증

나를 변화시킨 선교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선교국 5교구 속장 조예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 제게 주신 은혜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청년부 언니, 오빠들을 따라 여름마다 국내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초등부 교사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분반 공부를, 기도를 더 잘해 주지?” 라는 생각이 가득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시험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아이들이 내 기도를 다 들으며 귀 기울일 텐데...’라는 의식을 하자, 어떤 기도로 입을 떼야 하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는 기도를 멈추고 다른 선생님께 부탁을 한 뒤 교회를 나가 미안함과 죄책감에 영영 울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제 의를 세우는 기도 아닌 기도를 하려고 했고, 보여지는 것에 의식하는 허울뿐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 이후로 저는 마음의 문이 닫혔고 두려워서 선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오랜만에 다시 국내 선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고 오직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가 되길, 하나님을 전하러 온 도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아이들 개인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어 선교 팀장으로 헌신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번 해부터는 속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보여주기에 급급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선교를 통해 나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뤄지기를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조예선 속장(청년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2월 18일 주일, 2부와 3부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22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김해리, (부)김웅세, (모)배미혜

박서원·서진, (부)박현성, (모)김진아

유강우, (부)유인근, (모)한미진

이시윤, (부)이도형, (모)이경민

유선호, (부)유재욱, (모)염지선

정지호, (부)정민기, (모)이설아

전지아, (부)전승원, (모)신상미

김동연, (부)김현우, (모)이은지

이태이, (부)이세욱, (모)김지수

이은서, (부)이용석, (모)강지은

이투아, (부)이병규, (모)허진아

홍성진, (부)홍원기, (모)유영지

박태오, (부)박창규, (모)김나래

안하엘, (부)안인근, (모)민한나

공다연, (부)공지영, (모)신미나

장서희, (부)장호림, (모)박지민

김시아, (부)김정섭, (모)김가희

노이서, (부)노용선, (모)문지현

김채우, (부)김석민, (모)권민정

고승우·서우, (부)고대한, (모)천혜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나라

- 목회현장 -



이재근 목사 (경찰대학)

선교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음화를 3% 미만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광림교회에서 파송한 미전도 종족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경찰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세대의 복음화율이 지금처럼 계속 낮다면 수년 후에 우리나라 전체가 미전도 종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음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대학은 다음세대인 MZ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중요한 선교현장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입법된 경찰대학 개혁으로 인해 현재 경찰대학은 학부만 있었던 대학에서 학부생의 인원을 감원하고 변호사와 간부후보생 그리고 새로 설립된 치안대학원과 타국 경찰관들을 위한 국제경찰교육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대학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경찰대학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서 청년 중심의 다음세대에 대한 선교를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으로 다음세대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부부를 위한 속회를 구성하고 자녀들을 위한 교회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특별히 금년 상반기에는 교우들이 믿지 않는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항상 사랑을 베풀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학생과 불신자 경찰관 두 가정 8명이 전도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모든 가족이 같이 경찰대학교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세 가정의 출산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학장님을 보내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응답을 해주셔서 믿음의 학장님이 오시고 경찰대학교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경찰대학교회는 고(故) 김선도 감독님께서 용인에서 경찰대학이 시작될 때 설립하시고 광림교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경찰대학 선교를 계승하시고 광림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기도해주시고 후원하심으로 경찰대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나라"(고전 3:7)는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광림남교회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해

트리니티 찬양팀 초청 저녁예배



광림남교회는 지난 12월 18일(주일) 저녁, 트리니티 찬양팀을 초청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찬양팀의 집회를 통해 광림남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며, 이와 더불어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수님의 오심을 아름다운 목소리의 찬양과 악기의 모든 조화로운을 통하여 성령님의 온기를 우리 마음 속에 심어준 귀한 예배였습니다.

이번 트리니티 찬양팀 초청 예배는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예배를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오프닝 무대로 난타 타악기를 소리를 통하여 찬양 집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와 엮드려, 꽃들도,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아론의 축복,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의 임재의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크리스마스 성탄 찬양의 메들리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천사들의 노래가, 사랑의 왕, 저들 밖에 한 밤 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다섯 개의 찬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따스한 은혜의 선물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Amazing Grace, 오라 우리가, 빛을 들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워십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와 우리 심령이 다시 한 번 새로워지고, 찬양을 통해서 위로함과 새 힘을 얻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대상 13:8)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케를 이동하여 마침내 다윗 성에 도착했을 때에 다윗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기쁨으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찬양 예배도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또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따스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Merry Christmas!

한준구 전도사(광림남교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 되었습니다!

<2022년 3차 세례예식> 12월 11일 주일, 김정석 담임목사 집례로 46명 세례, 33명 입교



- 2교구 황상혁 4교구 김재형 4교구 홍솔민 5교구 김부일 5교구 김지오 8교구 안도현 8교구 안상현 8교구 박종선 10교구 권정화 10교구 조은숙
- 11교구 임유리 11교구 권기준 14교구 최규혁 15교구 정세운 16교구 정송아 18교구 박소영 18교구 박유경 18교구 이강훈 19교구 박선영 21교구 최예니
- 21교구 김경운 22교구 김미자 22교구 김련희 24교구 금연희 24교구 이 현 24교구 박라형 24교구 안준호 25교구 이혜인 26교구 조은주 27교구 황지선
- 27교구 문보라 29교구 전종현 30교구 양효준 30교구 임난희 52교구 심승연 52교구 유영나 61교구 문대호 71교구 정유진 71교구 최민영 88교구 유혁근
- 88교구 임진혁 88교구 강예은 88교구 이진수 교회학교 김채은 남교육 박민수 남교육 경은선 입교 -> 6교구 김재성 10교구 박병우 16교구 신현성
- 20교구 김진희 23교구 박혜인 24교구 이예인 24교구 허 조 25교구 신동길 27교구 이해연 30교구 한준성 51교구 김태훈 51교구 김나현 52교구 최원석
- 54교구 이예은 88교구 유선화 88교구 유희운 88교구 오태성 88교구 이승은 88교구 이하늘 88교구 김영수 88교구 이진규 88교구 정세호 88교구 김동영
- 88교구 육근일 88교구 박지원 88교구 조형찬 88교구 김지현 88교구 최성우 88교구 황현철 88교구 양정아 교회학교 송새하 교회학교 김한송 남교육 황보정현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풍요로워진 시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주일교육프로그램 수료식



12월 14일 수요일에 2022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및 주일교육프로그램 수료식을 가졌다. 봄학기에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 나이다'라는 율기서 말씀으로 3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되었고, 가을학기는 9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주제로 시편 89편까지 강의가 이어졌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12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광림교회 본당과 지교회에서 동시에 트리니티 성경공부를 강의했다.

봄학기는 4,340명, 가을학기는 4,458명이 등록했으며 이중 수료자는 2,265명, 이수자는 481명이었다. 김희선 권사(30교구)가 트리니

티 성서대학원 수료자 대표로, 윤해진 권사(21교구)가 이수자 대표로 김정석 담임목사로부터 각각 증서를 받았다.

주일에 실시된 교육프로그램에서는 4Steps 평신도 지도자 교육은 149명, 유양겔리온 전도 학교는 47명, 츠즈라이프(신약의 강)는 15명, 어번던트라이프(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23명이 수료했다. 4Steps 평신도 지도자 교육 김미경 권사(10교구), 유양겔리온 전도학교 박정숙 집사(30교구), 츠즈라이프 이득섭 권사(9교구), 어번던트라이프 이기순 권사(11교구)가 대표로 수료증을 받았다.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에서는 율기서에

등장하는 율을 통해 인간에게 내린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며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귀한 모습으로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까지 담고 있다.

가을학기에는 시편 말씀을 강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자임을 다윗의 아름다운 시로 고백하고 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시편 말씀에 그대로 녹아 있다. 진실하고 정직한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그와 하나가 되어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한없이 감사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한 해 동안 광림교회의 트리니티 성경 공부와 여러 주일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풍요로워지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유병권 기자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회복하시는 하나님
김희선 권사 지음

이 책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섭게 공격해 오는 시기 전후에 저자가 전했던 설교 8편을 모아 엮었으며, 성경 속 7명의 이야기를 통해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세상은 팬데믹, 전쟁, 이상 기후 등의 위기에서부터 개인적 상처와 실패, 절망과 상실과 우울감 등의 아픔에 이르기까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렇기에 또한, 세상에는 아직 충분한 만큼의 눈물이 흐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허락하시고, 부르짖어 말하도록 허락하시며,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시는 분이시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내적인 삶과 사명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제 6회 1st Wedding Anniversary Party>

처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기대하며 영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주일 오후, 광림교회 청장년 2부 주최로 <제 6회 1st Wedding Anniversary Party>를 진행했다. 코로나 기간 중 결혼하여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는 이들을 초청하여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이날 자리에는 약 90여 명의 부부들이 함께 참석하여 기쁨의 시간을 보냈다.

웃찾사 출신으로 유튜브 등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김선정 개그우먼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축하 메시지, 전지현 재즈 콰르텟의 연주와 레크레이션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김정석 담임목사님은 "결혼식 당시 주례 말씀으로 당부하셨던 내용을 되새기시며 하나님 앞에서 처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로 살겠다'라며 약속한 사람들이다. 걱정과 근심으로 약속을 잊을 때가 많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듣고 한 몸 되기를 약속하며 오늘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성탄절을 앞둔 연말이라 각종 경조사와 개인사로 준비하는 이들의 몸과 마음이 분주했다. 게다가 올해 가장 추운 날씨와 독감, 코로나 재유행이라는 악재가 겹쳐 아기를 둔 이들은 참석을 매우 꺼려했다. 그러나 임원과 속장들의 헌신과 기도로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속회별 중보 기도와 심방, 교회 내 기관들의 협조도 있었다. 게다가 청장년부터 발



은 은혜를 흘러 보내겠다고 신혼 생활에 필요한 선물들을 직접 선배들이 제공하여 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받은 이도 행복해했고, 헌신한 이도 기쁨의 시간이었다.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한 김현우, 김솔아 부부는 이번 행사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자리라며 공동체에서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복음 전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것을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함께 처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기대하며, 영원을 기다리는 신앙의 부부, 광림교회의 큰 기둥이 될 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를 부탁한다.

유용찬 목사(청장년부)



잘 산다는 것
유진 피터슨 지음

이 책은 유진 피터슨이 교우들에게 20년 넘게 전한 목회서신 및 설교, 목회 현장에서 썼던 미출간 원고를 모아 엮은 책으로,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다.

돈, 시간, 노동, 믿음, 관계, 공동체, 기도, 단순함, 예배, 안식 등 일상에서 겪게 되는 사안들을 아름다운 언어로 풀어낸다. 저자는 평범한 삶의 비범한 영성과 예수님처럼 살수록 실제로 더 인간다워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삶이다. 잘 산다는 것은 성취나 소유, 안락함에 있지 않다.

이 책은 짧은 묵상의 글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사는 인생들이 소망을 품고 용기 있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길, 잘 사는 길을 견도록 도와준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2022

광림교회 10대 뉴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2022년 광림교회는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회복과 소망의 한 해를 보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선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은혜의 시간을 지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며 2022년 광림교회 10대 뉴스를 모았다.

이상희 기자



제34회 호렙산 기도회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라〉소망과 용기,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 6월 6일 ~ 7월 15일까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옴기 /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3월 8일~5월 24일까지

시편 1 /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9월 6일~11월 22일까지



총력전도

〈4월, 10월 총력전도의 달〉 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 축제를 가졌다.



나사렛성전 리모델링

믿음의 다음세대 교육과 다목적 예배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동탄광림교회 기공예배

5월 4일, 동탄2신도시에서 기공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역사로 선교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했다. 내년 상반기 봉헌 예정이다.



잠비아광림미션센터 기공예배

6월 15일 잠비아 루사카에서 기공예배를 드렸다. 교육과 선교 교류 연합의 장으로 내년 상반기 봉헌 예정이다.



청년부 국내 교육선교

전국 12개 지역에서 다음세대 예배 회복에 앞장섰다. 7월 21일~8월 10일까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선물을 위한 <사랑트리 캠페인> 12월 4일~25일까지



청년부 해외 선교

태국, 몽골, 네팔에 250명의 청년들이 해외 단기선교로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 10월 9일~15일까지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쉐마 다시 기억하는 말씀” 다음세대를 위한 은혜의 축제. 7월 16일~8월 7일까지



선교구 성가제

3년 만에 다시 열린 선교구 성가제로 14개 선교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사랑부 여름수련회

“다시 하나님 집으로” 7월 23일~24일까지



김선도 감독님 소천

믿음을 삶으로 보이시며 하나님과 교회, 복음과 선교를 위해 헌신하신 선한 목사 김선도 감독님께서 11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